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세션 3, 요한 스타일, 파트 2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요한 스타일, 파트 2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요한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더 넓게 열어 주세요. 우리를 격려하고, 바로잡고, 당신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오리엔테이션 단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요한의 스타일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그의 독특한 어휘, 설명 또는 편집 노트, 오해 및 아이러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중 의미로 넘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종종 단어의 이중 의미를 이용합니다.

어떤 주어진 맥락에서 단어가 단 하나의 의미만 가진다는 해석적 원리를 배운 학생들은 요한의 이중 의미, 이중 의미의 예를 의심스럽게 여기거나, 아마도 우연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 빈번합니다. 물론 요한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단일 의미는 기본 규칙입니다. 단일 의미가 없다면 이중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저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는 죄를 짓지 말자. 겸손하게 말씀을 연구하여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자. 이미 서론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다.

거했다는 단어는 잠시 살았다는 뜻이지만, 그것은 오래된 시험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어 구약성경 칠십인역의 구약성경 단어의 어근이며, 그것은

장막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거했습니다. 글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게 맞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했다는 뜻이지만, 이중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 때문에 그것이 장막 어근을 반영한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 영광, 그리고 성막이 함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삶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상에 계셨지만, 또한 그가 구약의 성막을 대체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이미 그가 구약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진실되고 위대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 단어 *anthen* 은 다시라는 뜻이고, 위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사실, 둘 다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태어난 후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요한의 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요한이 독자를 다시 사로잡기 위해 이중 의미를 사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런 것들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 복음의 유명한 말은 어린아이가 기다릴 수 있고 꼬끼리가 헤엄칠 수 있는 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꼬끼리의 바다에 있습니다. 처음 읽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것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10-14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살아있는 물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살아 있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살아있죠. 알겠어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영적 물에 대해 말할 때 이중적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영이 주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거나, 아니면 영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에 대한 좋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말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든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정규 병렬성, 지금은 6번인 카이아즘에 있습니다. 정규 병렬성은 A, B, B, A 또는 A, B, C, C, B, A 패턴을 따릅니다. 원하는 만큼 멤버를 가질 수 있습니다: A, B, C, D, E, E, D, C, B, A, 이렇게요. 우리는 보통 반사에 의해 작은 돌을새김 숫자 1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A, B, B', A', 이런 식으로요. 요한은 카이아즘을 사용해서 구절들을 연결하고 특정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건, 육신을 입기 전의 아들이고 그는 아직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예수의 이름을 지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을 입기 전의 아들이고 그는 아들이라고 불렸을지도 모르죠, 맞죠? 아니요.

그리스도? 아니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 아니요. 아니요, 그는 먼저 1절의 단어로 두 번, 세 번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려집니다. 그의 다음 칭호는 빛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는 8절에서 그것을 불렀습니다. 그럼,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은 성육신 이전의 아들을 말씀으로 지칭하고, 그런 다음 그를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일반적인 병렬법을 따랐다면, 우리는 이 패턴을 가졌을 것입니다: 말씀, 빛, 말씀으로서의 성육신, 빛으로서의 성육신, 하지만 그는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1절에서는 말씀이고, 8절에서는 빛이며, 세상에 오는 참 빛이며, 9절에서는 B 프라임이고, 물론 14절에서는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모든 주석에서 인정됩니다. 많은, 많은 주석가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룰 만큼 충분히 큰 사람입니다. 보세요 . 어떻게 기능할까요? 그것은 단어의 화신, 빛에 의한 세상의 조명을 강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14. 이것은 요한 복음의 서문에서 성육신이 실제로 언급된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부르거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래로부터 왔고, 나는 위로부터 왔다,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오는 참된 빛을 분명히 보고, 세상을 죄스럽고 무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참된 빛이 들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순수함과 성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카이아스틱 패턴, 역 병렬법을 사용하여 본문의 한 부분을 통합하고, 이 경우 서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 인간이 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6장 36 절에서 40절까지 카이아스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메모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달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36,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아버지 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여기에는 카이아스틱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지 보세요. 36절은 보고 믿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부정되어 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40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A와 A 프라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A 프라임이 A와 일치하지만 프라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1을 올립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텍스트에서는 동일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의 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인 존의 변주곡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 B, B,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B 프라임은 39에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아무것도 잃지 않고, 내가 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으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을 지키셨습니다. A, B, C,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38,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것이 C이고, 여기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C와 C prime은 둘 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A, B, C, C prime, B prime, A prime.

12장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수년간 학생들에게 말했던 대로, 제가 독창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매우 의심해야 한다고요.

저는 창의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2:38~41은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에요. 28이에요. 아, 제가 생각했던 건 38이에요. 37은 요한 복음 전반부 전체, 즉 표적에 관한 책 전체의 열쇠예요.

그것은 우리가 본 위대한 목적의 진술과 평행을 이루며, 여기서는 그가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사야 53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서 A, 38절에서 A, 저는 A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8절, 첫 번째 부분, 38절, 두 번째 부분은 B, 이사야 53장의 인용문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자면, 30, 39, 그들은 B prime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말했고, 지금은 이사야 6장을 인용합니다.

그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칠까 두려워하게 하였느니라. A, B, B prime, A prime, 이사야, 그는 선지자의 말씀을 말하며, 53장을 인용합니다. 인용 이사야 6장은 이 시대의 선지자의 말씀과 불신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본문을 하나로 모으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 언약 백성의 불신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형은 요한의 스타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사실, 변형은 요한의 스타일의 특징이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요한에 대한 훌륭한 주석을 쓴 레온 모리스, 견고한 복음주의 주석, 맵소사, 저는 레온 모리스와 그의 작품과 그의 영향력을 존경합니다.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요한에 대한 그의 훌륭한 주석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좋은 표현인데, 아마도 그는 요한을 공관복음처럼 너무 많이 읽었고, 위대한 신의 사람 레온 모리스는 그것을 쓸 때 요한의 독특한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주석은 훌륭하고, 네 번째 복음서에 대한 그의 연구도 훌륭합니다. 그 책의 한 장은 '요한 복음서 스타일의 특징인 변형'이라고 불립니다.

Morris는 John의 어휘와 어순의 빈번한 변화를 쉽게 보여주고,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것은 John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사실, 그는 이것에 대한 급진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변형은 존의 스타일에서 너무나 흔한 특징이어서 그 존재가 거의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그가 어휘를 변형하지 않을 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점을 두는 방법입니다. 존은 그것을 변형하므로 21장에서 사랑과 사랑, 아가페와 필레오의 차이는 그의 변형의 일부일 뿐입니다. 존은 '아니오'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양과 양과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사랑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어휘를 변화시키고, 사물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모리스, 레온 모리스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 때때로 단어 연구에 백과사전적인 신약 학자들의 구세대에 속해 있었고, 여기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는 네 번째 복음서에서 매번 무언가를 반복하고, 거의 매번 어휘의 어순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어나는 일을 연구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셀 수 없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여섯 번이나 여덟 번은 abiding과 함께 합니다. 요한은 abide, abide, abide, 내 안에 거하는 모든 가지는 내 것을 맺습니다. 만약 당신이 abide하지 않는다면,

abide, 오, 나의 말씀, 그리고 Morris는 요한복음 15장에서 abide가 나오는 모든 것이 변형을 보인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존은 변형을 통해 요점을 만들 수 없나요?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의 요점, 그의 변형의 단순한, 단순한 계기는 아마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저는 설교 등을 들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도 요한 하인 변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레 오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에 사용되기 때문에, 때때로 필레오가 아가파오 보다 덜한 사랑이라고 자동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 때로는 인간 사이의 단순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은 존의 스타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많습니다.

구약의 사상. 요한 복음은 구약의 암시로 가득 차 있다. 처음 12장 각각에는 구약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둔 사상이 들어 있다.

이것은 요한의 스타일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구절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7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저는 진보적 분배주의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실례합니다, 오래된 분배주의적 이해를 개선했습니다. 신학이 발전합니다. 제 자신의 언약 칼빈주의 신학이 발전합니다.

앤서니 호케마는 땅의 약속에 관한 구약의 일부 표현이 새 땅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언약적 전통의 개선입니다. 저는 확실히 오래되고 심지어 새로운 학교적 느낌의 성경과 비교했을 때 경륜적 전통의 개선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7을 구약의 배경과 비교해보면, 은혜와 진리는 히브리어인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구약에 반영되어 있고, 예를 들어 출애굽기 34장과 많은 시편에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제 비행이 저를 데려갈까봐 두렵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좋아요. 1:17.

위대한 것은 우리, 신, 그리고 에멧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주님의 신실함은 영원합니다. 이 구약의 조합은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구약의 조합이라면, 그것은 구약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7은 무슨 뜻인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만약 그것이 구약의 개념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인 불일치가 아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신실함이 예수의 인격 안에서 너무나 위대해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요소들은 비교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광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거래입니다. 과장의 한 예입니다. 요한은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는 비교인 것을 노골적이고 절대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모자이크 계시는 비교에 따르면 단지 합법적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은혜와 진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배경 식별은 51의 열쇠입니다. 처음 읽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의 종말론적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다니엘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구약의 배경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위아래로 오르내립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은 이제 예수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천사의 현존이 인간의 아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는 하늘과 땅 사이의 사다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중보자입니다. 요한이 가르치는 그의 재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중보자라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상은 네 번째 복음을 밝혀준다. 11:24.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르다는 자신이 충실한 유대인임을 보여준다.

그녀는 구약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녀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도 다니엘 12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는 이사야서의 몇 구절, 아마 25장과 26장일 겁니다. 제가 성경에 그것을 썼나요? 좋은 생각이네요, 피터슨. 네.

이사야 25장 8절과 26장 19절. 저는 거기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과 26장 19절, 다니엘 12장도요.

많은 경우, 가장 분명한 증거로 여겨지는 것은 땅의 먼지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구별합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평소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주님의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이라는 구약성경의 개념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장을 생각해 보세요. 참은 거짓과 반대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의 생각에 참은 충만하고, 완전하고,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포도나무처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쁜 열매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연합으로 진정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상징주의. 우리는 2:19에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6:35.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존, 미안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원론. 요한복음 3:19-21.

한 번 이상, 나쁜 언급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19-21.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의 이원론은 존재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윤리적 이원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니교, 즉 두 가지 영원한 원리,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라는 개념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어디에 반영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스타워즈 영화에 반영돼요. 포스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아니, 그건 존재론적 이원론입니다. 즉, 신, 또는 그런 경우 신들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선과 악.

절대 안 돼. 성경은 존재론적 이원론을 가르칩니다.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은 전적으로 선하십니다.

죄는 그의 세계에 침입하는 자입니다. 대신, 존의 이원론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존재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입니다.

위와 아래. 영과 육. 진실과 거짓.

죽음과 생명. 요한복음 3:19~21. 이것이 심판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에 빛과 어둠 사이의 윤리적 이원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1:9의 메아리가 있으며, 성육신에 대해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죄를 사랑했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빛보다 무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요 3:20,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행하여졌음을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윤리적 이원론입니다. 영원한 빛이 세상에 와서 인간을 비추고, 그들의 죄를 강조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빛을 미워하고 빛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잃어버립니다.

3:31.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방식으로 말하느니라.

세례자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를 구별합니다. 2세기 초에 세례자 요한 숭배가 있었다는 것은 세례자 요한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한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바로 이 전에, 나는 그보다 앞서 보내졌습니다. 나는 단지 신랑, 신랑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부입니다.

예수는 신랑이야. 나는 그저 베스트 맨이야. 나는 그저 친구야.

맙소사. 그리고 그는 위에서 오는 자는 하늘에서 오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위에 있어서 나는 가장 낮은 집 노예의 역할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샌들 끈도 풀 수 없어. 누가 땅에서 왔니? 바로 나야.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야, 존이 말하고 있어.

땅에 속하고 지상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지상에서 천상의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 이원론입니다.

5:24.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는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이원론. 15, 2.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나에게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제거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가지치기를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비유에서 보여 주듯이 심판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아지고, 불에 타 죽는다. 잃어버린 자들을 말한다. 잠깐만, 잠깐만.

내 안의 모든 가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지만, 그 특정 언어는

단순히 두 가지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를 나타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장에 들어가면 관참을 텐데. 시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잃는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죽는다. 가지는 모아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아, 8절.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됨을 보여준다. 열매가 없으면 영생도 없다.

이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된 성경적 원리입니다. 물론 열매의 정도입니다.

토양의 비유는 마태 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 복음 13장입니다. 좋은 토양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 60배, 100배. 저는 제 폴드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세 가지가 있고 , 열매 맺는 데는 세 가지 다른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 유형의 토양이 가리키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열매가 없고 지속적인 열매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영생도 없다. 열매가 있으면 영생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도 정도가 있다.

어떤 경우든, 어떤 경우든, 여기에 이원론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과장법은 존의 스타일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과장입니다. 우리는 1장 17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구약의 한 쌍, 조합 또는 연이라고 인식한다면, 이것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절대적으로 노골적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계시된 은혜와 진리와 비교한 과장된 비교 진술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시편 117장,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 예수 안에서 계시된 은혜와 진리와 비교되었습니다.

구약의 은혜와 진리는 단순하고, 단순해 보이고, 구약은 비교하면 단지 합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장법입니다. 3:17.

다시 말해, 요한은 위대한 작가입니다. 역사적 진실과 사실에 기초한 훌륭한 문학 작품이며 위대한 신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언급된 것처럼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들이 오신 목적은 정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정죄를 가져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심판을 가져오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구원을 가져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장에서,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15:22, 24에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는 원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두 부분을 모두 받아들일게요, 24. 내가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장법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인간은 유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자, 위대한 생명 주시는 자의 면전에 오기 전의 그들의 죄책, 그들의 죄책, 그들의 이전 죄책은 그를 거부한 후의 그들의 죄책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이전 죄책은 죄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말하는 방식,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화가 있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하지만 요한은 이런 과장법으로 말한다. 예수가 원죄를 부인하는 듯하다.

그것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은유적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용어로 주어진 과장된 진술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말씀과 표적에서 거부한 것에 대한 당신의 죄책감에 비하면, 당신의 이전 죄책감은 상당했지만 무시할 만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의 죄책감은 하늘에 있습니다 . 9:39, 이 모든 것, 또는 이 대부분의 것은 독자를 붙잡아 놓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읽는 것, 첫 번째 독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어 읽으면, Whew, 이제 3:17을 이해하게 됩니다. 3:17은 그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939와 함께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심판하러 왔다고 말했거든요. 심판을 위해 세상에 왔어요. 어느 쪽인가요? 둘 다예요.

그리고 당신은 명백한 모순을 보아야 합니다. 아들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여기, 939, 심판을 위해, 나는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눈멀게 하려 함이라. 아, 요한의 연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코끼리 같으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무나 놀랍다. 예수의 목표는 구원하는 것이지, 선교사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다. 319

그들은 정죄를 가져오지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은 아니다. 선교사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선교사가 없다면 사람들은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판단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겠는가?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은 지옥에서의 처벌의 정도와 일치한다.

가버나움아, 너에게 화가 있구나. 갈릴리의 또 다른 도시여, 너에게 화가 있구나. 너에게 행해진 기적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졌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과 벳새다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심합니다. 왜? 더 큰 빛은 더 큰 책임을 가져옵니다. 더 큰 책임, 거부, 실패는 더 큰 심판을 가져옵니다.

지옥에는 형벌의 정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완고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되는 날에 여러분의 심판을 더하고, 늘리고, 더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쌓아두는 것이 언어입니다.

9:39, 예수님은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오신 것의 부산물로 심판을 가져오십니다. 531과 814는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모순입니다.

5:31, 내가 홀로 증거한다면, ESV가 거기에 단어를 추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적절한 의미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다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31은, 네, 거기에는 홀로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ESV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성경이나 다른 문서를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한다면, 내 증거는 참이 아닙니다. 8장 8:14에서 그는 자신에 대해 증거한다면 그의 증거는 참이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모순이에요. 표면적인 모순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ESV의 추진력은 옳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을 판단하는 것은 내 권리가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수년 전에 성경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작업했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위원회는 어느 시점에서 십계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며 일종의 선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메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 가지 말씀을 바꾸는 데 매우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기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순을 알아차려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더 조사해야 하죠. 당신은 그것이 존이 우리를 정확하게 생각하게 하는 전략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5:31에서 ESV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어, 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30절에서 제가 듣는 대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심판은 공평합니다. 나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정확히 그들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증거와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면, 다른 증인들과 어긋나게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면, 바로 그 유모가 먼저 말하고 바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저에 대해 한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가 법적, 법으로부터의 증언, 어떤 사안이 유효하려면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만 con에서만 증언하고 아버지와 모순된다면, 내 증언은 거짓이지만, 그는 자신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존의 스타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끌어들이습니다. 우리를 붙잡아둡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요한복음의 구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요한 신학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요한 스타일, 2부입니다.